



# 강지원\_자기소개서



“길이란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 드라마 「미생」 1화

제가 가장 인상깊게 본 드라마의 한 대사입니다. 눈 앞에 놓인 길을 수동적으로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때로는 치열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저 또한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주어진 일만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주도적으로 일하고자 합니다. 항상 고민하고 도전하며 성장하는 팀원이 되겠습니다.

## Q.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해주세요!

### ▼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가 강지원입니다!

학부 전공으로 데이터에 흥미를 갖게 되어 꾸준히 프로젝트 경험을 쌓았고, 현재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Python, R, SQL 등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일에 흥미가 있고 Streamlit, Tableau 등 데이터 시각화 및 대시보드 개발 역량도 있습니다. Excel, PPT 등 MS Office 도구나 Github, Notion 등의 협업 도구 사용에도 익숙하며 백엔드(Java, Springboot 기반) 및 프론트엔드(Html, CSS 기반) 개발 경험도 있습니다.

처음 데이터 직무를 접했을 때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수단에만 초점을 두었는데, 실제 현업을 겪어보니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실무 경험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이터 분석가가 되겠습니다.

## Q. 성장과정이 궁금해요!

### ▼ 물음표 살인마가 된 이유

어린 시절부터 저는 항상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반에서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아이로 유명했고, 이후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도 배운 개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왜’라는 물음표를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문제 풀

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더 창의적인 풀이를 선보인 후 반 친구들에게 박수를 받고 느꼈던 뿌듯함은 아직도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자 했고, 자연스럽게 사회 현상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던 중 통계라는 도구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이중 전공으로 통계학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물음표를 던지는 것은,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결과는 곧 또 다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나가는 태도는 타인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저는 그 답이 데이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분석가로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데이터를 통해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Q. 어떤 장단점을 가진 사람인가요?

### ▼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저의 장점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침착함입니다. 평소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덩덤한 성격으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에도 이러한 성격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례로, 취준생을 위한 커뮤니티를 개발하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에 개인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이탈한 팀원의 업무 공백을 침착하게 해결하였습니다. 당시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그 공백이 더 치명적이었는데, 저는 당황해하는 다른 팀원들과 달리 침착하게 상황을 인수인계 받고 남은 기간에 할 수 있는 일부터 빠르게 파악하여 다른 팀원들에게 적절하게 분배하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여러 참고자료와 이탈한 팀원이 작성해둔 코드를 차근차근 이해하면서 남은 업무를 진행했고, 그 결과 마감 기한 내에 무사히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교육 과정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여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 ▼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저는 목표가 없으면 다소 느슨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학기 내내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방학이 되면 얼마 못 가서 풀어지곤 했습니다. 주어진 일이나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는 성실하게 시간을 보내지만, 그렇지 않을 때 흘려보낸 시간들이 저에게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깨달은 바로는, 너무 추상적이거나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단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휴대폰 메모 앱을 활용하여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하고 매일 To-Do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보다 생산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Q. 가장 뿌듯했던 성공 경험이 있나요?

### ▼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도전

A기업의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툴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초기 목표를 뛰어넘는 성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A기업의 ESG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중요한 과제였으나, 기존의 엑셀 기반 산정 툴은 단점이 명확했습니다. 담당자가 엑셀을 잘 다루지 못하면 사용이 어렵고, 데이터 입력 과정이 복잡하여 실수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PM과 논의하여 Python의 Streamlit 모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Streamlit 모듈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근무 외 시간을 할애하여 공부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 입장에서 훨씬 더 직관적이고 편리한 툴을 개발할 수 있었고, 기존의 목표를 뛰어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눈 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했고, 스스로를 한계 짓지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여 성취한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매뉴얼이나 항상 해오던 관습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도전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팀원들과 소통하며 함께 도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